

상무소각장 기금 64억 주민 복지에 쓰인다

주민협의체 합의... 사용 승인
인근 아파트 9000여세대 분배
엘리베이터·도로 개선 등 사용



지난 17년간 적립된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4억여원이 주민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민 복지 등에 사용된다.

지난 17년간 사용되지 못한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내년에 인근 주민 복지에 사용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이 기금을 사용처를 놓고 주민간 갈등을 빚어 제대로 쓸 수 없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무소각장 주변 1.3km 이내 아파트 14개 단지 주민 9000여 세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올해까지 적립된 64억3000만원의 소각장 기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사용을 승인했다. 주민협의체는 엘리베이터, 도로 정비 등 주민 편의와 복지 사업에 기금을 쓸 계획이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축조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매연과 악취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소각장이 가동할 때부터 적립됐다.

기금은 반입 쓰레기 1t당 수수료 1만 8000원의 10%(1800원), 시출연금,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며 매년 적게는 2억~3억 원씩, 많게는 7억~8억 원씩 적립됐다.

2016년 12월 31일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기금 사용처를 두고 피해 보상 차원에서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자는

지난 17년간 적립된 '광주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4억여원이 주민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민 복지 등에 사용된다.

쪽과 존치해 발전사업에 쓰자는 쪽으로 나눠 갈등을 빚어왔다. 2015년 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주변 300m에서 1.3km로 확대, 해당 주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상무소각장 피해주민은 지난 2016년 결정 고시 기준으로 소각장 반경 1.3km, 상무지역 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9033가구가.

지난 9월 출범한 새 주민협의체는 아파

트 단위·세대 수 기준으로 분배하고, 편의·복지 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기금 사용 계획서를 내면 내년 초까지 배분할 계획이다"며 "아파트 단지마다 세대 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분되고 기금이 배분되면 주민협의체도 해체한다"고 설명했다.

상무소각장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을 1일 320t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에 743억원이 투입됐으며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한편, 광주시는 폐쇄된 상무소각장은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으로 조성하고 부지에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관련 용역이 모두 마무리됐고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는 사업비 576억원이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중앙아시아 스토리 사업 행정학회 '하반기 행정·정책' 우수사례 선정

아시아문화원 역점사업인 '중앙아시아 스토리사업'이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18년 하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중앙아시아 스토리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콘텐츠 국제교류사업 개발 모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아시아문화원은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콘텐츠 20종을 개발했다. 그림책 콘텐츠는 영어, 러시아어를 비롯 중앙아 5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해 중앙아 현지에 보급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천자료로 여러 콘텐츠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OSMU기법을 통해 그림책 그림책 교구재를 만들고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북콘서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매년 전국의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공모해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최근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마을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해 모국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려인마을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행정학회 '하반기 행정·정책' 우수사례 선정

민주 광주시당 '강용주 보안관찰 해제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의 보안관찰 해제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광주시당은 강수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8년 12월 17일 법무부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면서 "1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보안관찰법으로 인해 19년 동안 그의 기본권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보안관찰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픈 역사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민주주의에 빛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우수당원 48명 포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8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2018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사진) 행사에는 서삼석 도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 등 각 지역위원장, 도의원, 기초의원장, 도당 상무위원,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목포 김은숙 씨 등 48명이 우수당원 포상을 받았다. '사진으로 돌아보는 2018년'을 주제로 도당 활동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서삼석 도당 위원장은 송년사에서 "지난 1년간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새해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전남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시민혈세 3억원만 고스란히 날리고... 일곡 시립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중단

광주시 쓰레기장 위 설립 추진
예산낭비 탁상행정 비난 빚발

일곡사 도중 지하 7~10m 지점에 쓰레기층이 부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북구 각화동, 일곡동, 용봉동, 남구 봉선동 등 모두 4곳에 82억원을 들여 권역별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중이다. 이 중 각화는 가장 먼저 완공됐고, 용봉과 봉선 청소년문화의 집도 각각 12월말,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쓰레기장 위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려다 3억원의 매몰비용만 쓰고 중단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쓰레기가 다량 매몰됐다는 주민의 증언이 많았지만 충분한 부지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탁상 행정' 탓이다.

광주시는 1997년 이전 일곡지구 택지 개발 당시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이 6401㎡가량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 내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곡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광주시의 단일한 행정 탓에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발주처인 종합건설본부와 관할 자치구인 북구청을 비롯, 위탁운영기관인 광주YMCA, 주민공동체, 의회 등과 조만간 공동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곡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와 관련, 건축·전기통신·건축기계·소방 등 4개 분야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일곡 청소년문화의 집은 9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애초 2019년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늦게 공사가 재개되면서 현재 공진률은 5%에 불과하다. 사업비는 지난해 6억7000만원이 1차 투입됐고, 올해 15억7000만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건립 중단에 따라 현재까지 투입된 3억여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부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인 일곡 제3근린공원 일대의 터파기와 토사 반출, 부지 조성에 이어 파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부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트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트어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http://www.joytour.kr

무안 ↔ 기타큐슈 온천 패키지 특가 399,000원부터~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 항공 월/화/수/목/토/일 매일 출발

오후출발(화,금,토)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기타큐슈, 뷔트, 유후인 2박4일 [정통] 529,000원~ / [품격] 599,000원
- 기타큐슈, 뷔트, 유후인 3박5일 [정통] 699,000원~ / [품격] 829,000원

무안 - 기타큐슈 크리스마스 연휴

이 가격 실화? 399,000원~ 문의 ☎ 1522-1901

무안 ↔ 다낭 직항선제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실속]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899,000원~ / 5일 94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1,099,000원~ / 5일 1,149,000원~

무안 ↔ 나트랑 2/2일 부터 출발

[휴양+노쇼핑] 나트랑 3박 5일 890,000원~
[관광+휴양] 나트랑, 달랏 3박 5일 1,050,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실속] 899,000원~ ◆ [품격] 1,099,000원~

무안 ↔ 코타키나발루(제주항공)

목요일 출발(3박5일) / 일요일 출발(4박6일)
[호핑팩] 549,000원~ / [품격팩] 69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 수, 금, 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품격팩] 6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실속(세미더블)] 오사카, 나라, 교토 899,000원~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99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출발

- [노팁,노음선] 스펀, 단수이, 야류, 지우펀 699,000원~
- [고품격] 화련, 테로각, 지우펀, 야류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어**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종다2003-1호

◆ 공동조각: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여행비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현금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인),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 각종 배지(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조이트어